

매크로의 압박을 뚫어낸 수급과 AI 모멘텀

2026년 9월 9일 글로벌 장마감 리포트

유가와 금리 상승이라는
거시적 위기 속, 코스피 7,000선
탈환의 동력을 해부합니다.

글로벌 매크로 긴장 속에서 피어난 아시아 증시의 독자적 랠리

기관 주도 KOSPI 7,000선 귀환 

7,051.64 (+1.40%)

- 33거래일 만의 7천선 안착, 기관 9,000억 순매수

글로벌 디커플링 현상 

미국(전통주 하락, 다우 -1.18%) vs
아시아(항생 +1.59% 등 AI 랠리 주도)

매크로 긴장 고조 

WTI 원유 \$64.89 / 미 10년물 4.788%

- 중동발 유가 100달러 압력 및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변동성 캘린더 예고 

미국 CPI/PPI 대기, 9월 14일 국내 증시
야간 매매(20:00) 연장

33거래일 만의 코스피 7,000선 귀환을 이끈 기관의 9,000억 베팅

KOSPI 7,051.64 (+1.40%)

KOSDAQ 830.37 (+2.28%)

외국인 및 개인 매도

국제 유가 부담 및 매크로 경계 심리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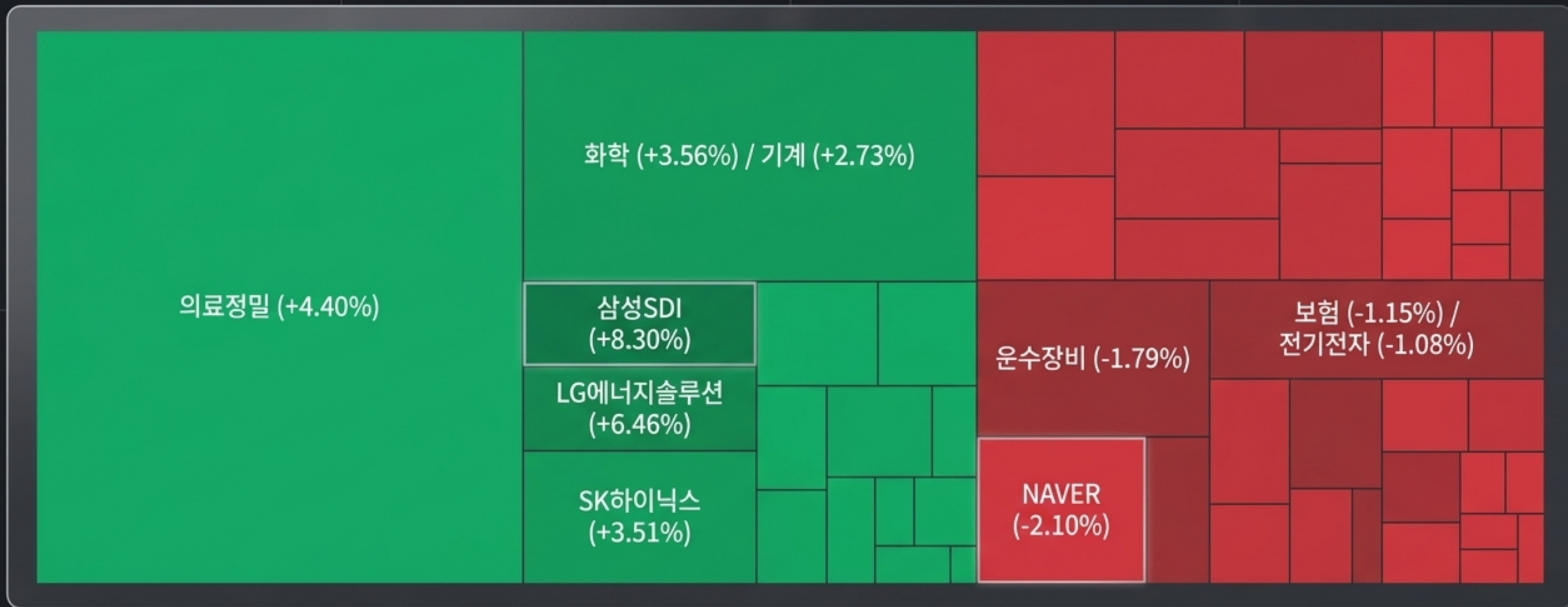


기관 9,000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 물량을
완벽히 소화하며 지수 상승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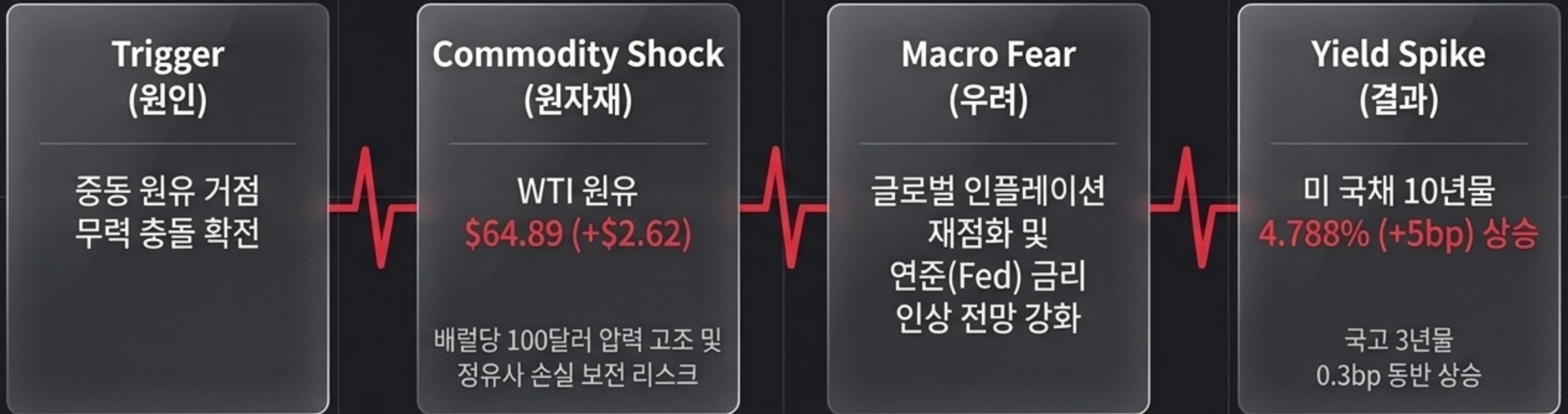
AI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투자 심리의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

의료정밀과 2차전지가 주도한 압도적 상승 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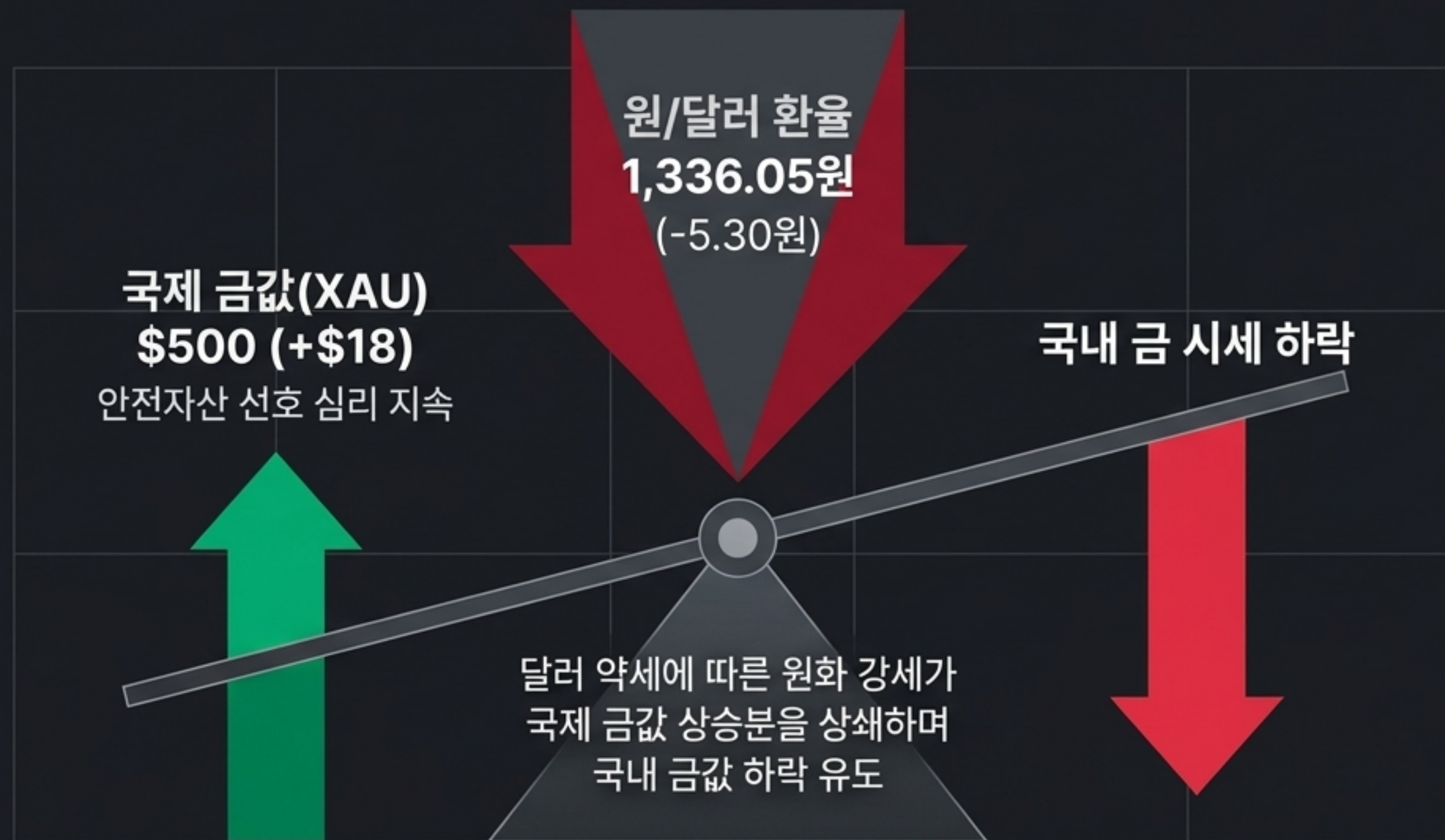
미국 증시 혼조세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2차전지 및 반도체 장비 중심의 뚜렷한 순환매 확산 중

중동발 위기가 쏘아 올린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의 연쇄 작용



이 연쇄 작용이 뉴욕 증시(다우 -1.18%)를 짓누른 가장 강력한 매크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

환율이 만들어낸 금 시세의 기현상과 위험자산의 역설



Crypto Insight: 위험자산의 독자 행보

비트코인 ETF 순유입
지속으로 \$103,000
(+\$1,240) 돌파.
안전자산(금)과
위험자산(비트코인)의
동반 상승이라는 기현상
포착.

글로벌 증시 디커플링: 유가에 짓눌린 미국 vs AI로 방어한 아시아

미국 (혼조/하락장)

DOW 52,786.07 (-1.18%)
S&P 및 NASDAQ 포함

Key Driver: 유가/금리 부담
직격탄. 전통주 약세.

Key Driver: AI/반도체 강세로
기술주 방어.

아시아 (상승 주도)

항셍 22,944 (+1.59%)
닛케이 56,734 (+0.46%)
상하이 3,215 (+0.45%)

Key Driver: 반도체 랠리가
인플레이션 우려 상쇄.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주 강세.
엔 캐리 청산 우려는 제한적.

유럽 (안정적 강세)

DAX 24,998 (+0.80%)
FTSE 100 10,556 (+0.79%)

Key Driver: 방산주 강세 및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기대감.

9월 14일, 국내 증시의 시공간이 확장되다



Rule Change

9월 14일부터 KOSPI 및 KOSDAQ 주식 매매
오후 8시까지 연장 (ETF 및 ETN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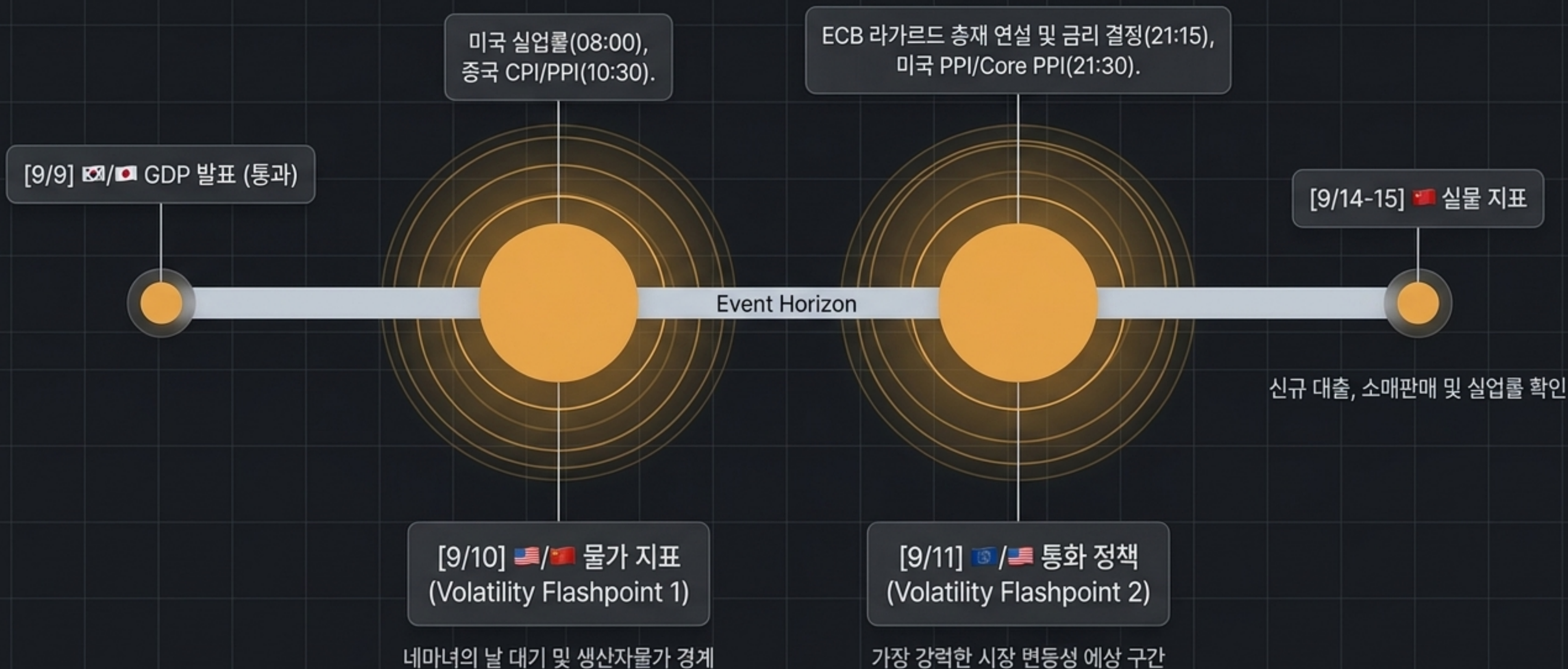
Structural Impact

직장인들의 퇴근 후 실시간 투자 가능성 확대.

Strategic Alert

유럽 장 개장 및 미국 장 프리마켓과 시간이 겹치며,
글로벌 매크로 이슈가 국내 야간 장중 변동성으로
즉각 반영될 위험 증가.

변동성 폭발의 고비: 이번 주 주목해야 할 글로벌 매크로 이벤트



3대 대응 전략: 매크로의 파도를 타며 모멘텀을 포획하라



Risk Hedge

유가 인플레이 방어선 구축

- 유가 100달러 압력에 대비한 에너지 수혜주 비중 확대 및 포트폴리오 헤지를 위한 금(Gold) 비중 유지.



Momentum Play

기관 수급의 종착지 공략

- 미국과 아시아의 공통 분모인 AI 인프라 및 반도체 장비 대형주 중심 접근.
- 2차전지(삼성SDI, LG엔솔)의 단기 낙폭 과대 순환매 활용.



Volatility Management

이벤트 드리븐 변동성 대비

- 이번 주 10일(CPI/PPI), 11일(ECB) 지표 발표와 14일 야간 매매 연장 도입 초기 장중 변동성 확대 장세에 대비한 현금 비중 탄력적 조절.

획일적 방향성의 종말, 정밀한 타겟팅의 시대

글로벌 시장은 이제 유가와 금리라는 무거운 닻(Anchor)과 AI라는 강력한 돛(Sail)을 동시에 달고 향해 중입니다.
거시적 악재에 겁먹지 않고, 미시적 수급이 가리키는
정확한 궤적을 쫓는 자만이 이 변동성의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